

2023. 8. 9.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8일(화)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: 서울교통공사 홍보실

홍보실장	마해근	6311-9400
홍보팀장	이현우	6311-9401
담당자	김희정	6311-9403
관련 홈페이지	www.seoulmetro.co.kr	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: 3쪽

### 교통약자와 행복한 동행

## 서울교통공사, 감동 스토리텔링 공모전 최종 선정작 발표

- 교통약자들의 지하철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에피소드 공모
- 지하철 이용고객 대상으로 지난 5.22.~7.10.까지 총 120여편 접수
- 최종 선정작 11편 선정... 최우수작에 ‘서울지하철과 함께하는 안심 동행(최양수작)’
- 수상작은 홍보물로 제작되어 역사 내 조명광고·웹진·유튜브 통해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

- 서울교통공사(이하 ‘공사’라고 함)는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과 관련한 감동적인 사연들을 가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「행복한 동행」 스토리텔링 공모전(이하 ‘공모전’)의 최종 선정작 11편을 발표했다.
- 공사는 지난 5. 22.(월)부터 7.10.(월)까지 50일간 공사 누리집을 통해 작품을 응모를 받았으며, 공모 결과 120편의 작품이 접수됐다.
- 공사는 2차례의 심사를 거쳐 120편의 작품 중 11편의 작품을 선정했다. 최우수작으로는 최양수 님의 ‘서울지하철과 함께하는 안심동행’이 뽑혔다. 최양수님은 작품을 통해 “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해진 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, 역직원과 주변 승객의 따뜻한 배려로 편안히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다.”라며 “지하철을 탈 때마다

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나아지고 있음을 느낀다.”라고 말했다.

- 이외에도 ‘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연’, ‘의식을 잃었지만 역직원과 주변 승객의 도움으로 의식을 차린 70대 어르신들의 사연’ 등 1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교통약자로서 지하철을 이용하며 겪은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진솔한 글로 풀어냈다.
- 심사는 1차 사전심사와 2차 본심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. 2차 본심사에서는 3명의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. 최우수상 1명에게는 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등 수상작에 대해 총 22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.

구 분	수상작수(편)	상금	비 고
계	11	220만원	제세공과금 포함
최우수상	1	50만원	
우수상	2	30만원	
장려상	3	20만원	
가 작	5	10만원	

- 선정된 작품은 간단한 일러스트와 사연으로 구성된 홍보물로 제작되어 역사 내 특정조명광고에 게시될 예정이며, 공사 웹진(공감메트로) 및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. 공사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.
-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“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하철이 중요한 교통수단일 뿐 아니라 가슴이 따듯해지는 사연이 가득한 공간임을 일깨워주었다.”라며 “공사는 이번 공모전 속의 사연들을 토대로 ‘약자와의 동행’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퍼지고, 지하철 배려문화가 더욱 성숙해지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 : 「행복한 동행」 스토리텔링 공모전 선정작 목록. 끝.

구 분	선정작
최우수상 (1)	서울지하철과 함께 하는 안심동행(최양수 作)
우수상 (2)	할머니 괜찮으세요?(허삼순 作)
장 려 (3)	아들과 매일 지하철 타는 엄마(임선미 作)
	두 모녀의 행복한 동행(유혜영 作)
	서울 지하철노선도, 떡 반죽기를 찾다(박소영 作) 교통약자석의 가족들(김화순 作)
가 작 (5)	인생을 귀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.(박민정 作)
	안내견 리트리버는 오늘도 출근 중!(김혜리 作)
	연분홍 원피스(이다혜 作)
	지하에서 길을 찾다(김완수 作)
	꼬덕이기(김영환 作)